

“함께 나누면 더 큰 희망이 피어납니다”

남태준 원장, 미얀마 구순구개열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사



지난해 추수감 사절을 앞두고 미얀마 수도의 관문 양곤공항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남태준종합치과>의 남태준 원장(사진)과 의료 스텝들이 미얀마의 빈민촌에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반입하려

던 의료장비의 통관을 놓고 미얀마 세관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이었다. 세관 당국은 반입하려는 의료장비들이 정말로 미얀마 현지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긴 협의 끝에 마침내 장비의 반입을 허락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야만 했던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의 의지가 자칫 무산될 뻔한 위기였다.

남 원장은 과거에도 킬링필드의 아픔을 간직한 땅 캄보디아, 경제불황과 마약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했다. 또 북한의 나진·선봉 지구도 수차례 방문해 병원을 설립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남 원장이 의료봉사에 이렇게 헌신적인 것은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한국의 농촌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위로는 6명의 형과 누나가 있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부양해야 했던 남 원장의 당시 집안 형편은 상상만으로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설상가상 그가 6살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온 가족은 더 심한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7남매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갔다.

“삼양동 판자촌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동네 전체가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만큼 가난한

동네였어요.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공사판에서 음식을 팔았어요. 그래도 지긋지긋한 가난은 떨어질 줄 몰랐어요.”

가난을 피해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몸서리쳐지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를 머금고 공부해 의사가 됐다. 돈의 궁핍에서 벗어난 그는 가난한 시절 그토록 동경했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돈에 구애됨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제트스키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다. 응급수술을 받고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 남 원장은 이로 인해 ‘갱생’ (Bom Again) 했다고 말한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1994년에 있었던 일이다.

남 원장은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목사가 됐고, 의료사역에 남은 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선교와 의료봉사 단체인 CHM을 설립했다

그가 의료 봉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아픈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실감하기 어려워요. 역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모자라요. 아픈 자식이나,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나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 원장에게도 역장이 무너져내리게 하는 자식이 있다. 그의 딸은 11살 때부터 허리가 휘는 병을 앓았다. 그런데 평소 30도 정도 휘어 있던 허리가 어느 해 갑자기 70여도 휘어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목숨을 잃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동 의서에 서명하고 온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대신 수술받고 싶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21살인 남 원장의 딸의 허리는 지금도 쇠로 묶여있다. 옆드리기도 힘이 들지만 현재 대학에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제 딸은 다행히 의료 수준이 뛰어난 미국에서 생활하고, 또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를 두어 온전히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상에는 자식이 아파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인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죄를 짓는 일이에요.”

남 원장의 미얀마 의료봉사에는 현지에서 의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장철호 선교사(59, 소아과 전문의)가 동행했다. 장 선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로 의술을 펼치다 6년 전 미얀마에서 의료 사역을 펼치고자 양곤의 변두리 빈민가에 ‘베데스타 POLY 클리닉’을 건립하고 가난한 미얀마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1년에 두 차례씩 한국 의사들과 함께 구순구개열(언청이)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수술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0여 명의 아이들이 무료 수술 혜택을 입고 새 삶을 찾았다.

남 원장의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봉사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을 비롯해 수간호사, 레지던트, 한의사 등이 동참했다. 그런데 남 원장의 수술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도 보였다. 그는 의료진도,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와 그들의 부모도 아닌, 바로 미얀마 세관 당국자였다. 그는 남 원장 일행이 반입했던 의료장비들이 실제로 현지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다. 그는 남 원장 일행이 미얀마인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의료봉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감동을 받고, 차후에는 사전에 통보해 주면 의료장비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월에도 가난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베풀고 온 남 원장은 “구순구개열은 얼굴에 생기는 선천성 기형으로 600~1,000명당 1인 꼴일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 잘 나타납니다. 입술, 잇몸, 입천장이 좌우로 갈라져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치아가 드러나고 이 때문에 입, 특히 치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구순구개열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 기형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술만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의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